

료지 이케다 개인전… 데이터로 빛은 예술의 시학

ACC 개관 10주년 기념 전시

오늘부터 복합전시 3·4관서
최신작 3점 등 총 7점 선보여
“전시는 여행…해석 관객 몫”

“전시는 일종의 여행이다. 같은 작품이라도 공간에 따라, 관람 시기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사운드 아티스트 거장 료지 이케다(Ryoji Ikeda)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찾아 이번 전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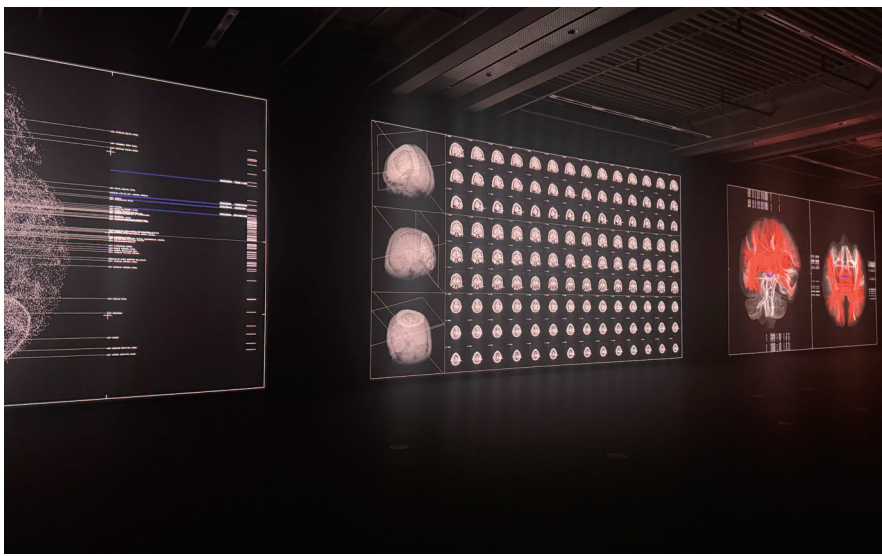
그는 “작품의 메시지를 텍스트로 직접 전달하는 대신, 관객이 본인의 감정에 따라 의미를 찾아가길 바란다. 마치 콘서트장을 나서듯 열린 마음으로 이 전시를 즐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ACC 개관 10주년을 맞아 10일부터

12월28일까지 복합전시 3·4관에서 개최되는 ‘2025 ACC 포커스-료지 이케다’는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데이터 미학의 향연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데이터 아트를 시적 언어처럼 활용하며, 정적 데이터와 동적 데이터의 균형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품에서 자연과 인간에 대한 철학적 관점으로 정적 데이터를 다루고 있다”며 “데이터 간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나의 미학”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년에 걸쳐 완성된 ‘data-verse’ 시리즈는 그의 철학과 기술이 집약된 결과물로 꼽힌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이케다의 최신작 4점을 포함해 총 7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전시의 시작을 알리는 ‘data.flux [n° 2]’는 DNA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기하학적 패턴을 10m 길이의 LED 스크린에



‘2025 ACC 포커스-료지 이케다’ 전시 현장.

끝없이 흘러보내며 몰입적 경험을 유도한다. 또 다른 신작 ‘critical mass’는 가로, 세로 10m 바닥 스크린 위에 투사된 강렬한 흑백 대비 이미지와 저주파 전자음을

통해 관객의 신체 감각을 일깨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소재에 바코드 패턴을 인쇄한 ‘the sleeping beauty’ 시리즈, 과학 데이터를 시청각적으로 재해석

한 ‘data-verse’ 3부작의 연장선인 ‘data.gram [n° 8]’ 등이 최초 공개된다. 특히 ‘data-verse’ 3부작은 우주의 물리학 데이터부터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미시적 입자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과학 정보를 예술로 번역한 대표작이다. 전시장에서는 총 40m 길이의 벽에 투사돼 압도적인 규모로 관객을 맞이한다.

이케다의 기존 대표작인 ‘point of no return’과 ‘exp #1’도 함께 전시돼, 작가의 작품 세계 전반을 조망할 기회를 제공한다.

김상욱 ACC 전당장은 “이번 전시는 ACC와 료지 이케다가 10년 전 함께 시작한 융·복합 실험의 현재를 조명하는 기념비적인 자리”라며 “기술과 데이터가 주도하는 시대 속에서 예술이 인간의 감각과 사고, 존재를 어떻게 성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지역생존 AI 프로젝트 – 우리 고향, 부탁해!’ 18일부터

지역MBC 8개사 공동제작 12부작·매주 한 편씩 방송

MBC가 인간과 인공지능(AI)이 함께 지역 소멸 위기 해법을 찾아가는 실험적인 방송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9일 광주MBC는 지역 MBC 8개사가 공동 제작한 12부작 ‘지역생존 AI 프로젝트 – 우리 고향, 부탁해!’가 오는 18일부터 매주 한 편씩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인간이 묻고 AI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한 내용에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해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한다. 각 지역이 직면한 현안뿐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 상황에 대해 생성형 AI의 데이터 분석과 해석을 기반으로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민들이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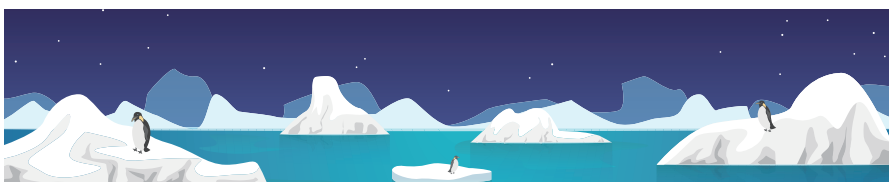
고민하고 기술적 접근을 시도한다.

알약과 알집 프로그램 제작사인 이스트소프트사의 Perso AI를 활용해 AI 아바타 ‘유리’를 탄생시키고 유리와 백울희 MBC경남 아나운서가 서로 묻고 대답하며 지역 생존 해법을 찾는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기업인 뉴엔 AI사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으로 포털사이트와 SNS에 노출되는 주제별 키워드 분석 결과와 의미를 소개하고 세종사이버대 김덕진 겸임교수의 특강을 통해 실전 AI 활용법을 쉽게 전달하는 코너도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원영동·원주·충북·대전·광주·목포·경남·제주 등 지역 MBC가 공동 제작했다. 오는 10월에는 TV를 통해 6부작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박찬 기자·연합뉴스



여름방학 맞아 ‘우리는 북극탐험대’ 운영

이강하미술관, 초등생 3~5학년 대상
19일부터 9월6일까지… 11회차 과정

광주광역시 남구 이강하미술관에서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2025 우리는 북극탐험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초등학생을 10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9일 이강하미술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무더운 여름 아이들이 ‘눈송이’가 돼 광주에서 북극까지 탐험을 떠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북극과 광주를 예술로 연결하고 공동체의 힘과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배우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캐나다 북극과 3년간 국제문화교류를 통해 북극을 경험하고 온 기획자와 예술가들이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에게 예술적 가치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강하미술관이 위치한 양림동(근대역사문화마을)의 지역 문화유산·역사자원을 연계해 북극과 광주를 연결하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구성했다. 특히 예술가의 시선을 통해 연결된 두 도시의 장소성과 역사적 기반을 두고 어린이의 상상력으로 해석해 현대미술로 표현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했다.

모든 교육 과정은 무료이며, 초등학생 3~5학년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수업 일정은 이강하미술관 및 양림동 일대에서 19일부터 9월6일까지 매주 토, 일 오전 10시~오후 1시, 11회차 과정으로 진행된다. **박찬 기자**

시간으로 사유한 감정의 조각들…‘조선아 개인전’ 내일 개막

내달 10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감정의 결 포착한 회화작 3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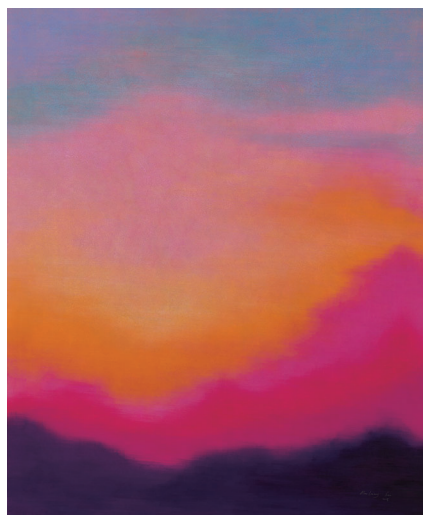
자연의 미묘한 변화와 감정의 섬세한 결을 포착해 온 작가 조선아의 개인전이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에서 열린다.

광주예술의전당은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국화가 조선아 개인전 ‘시간을 담다’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아 작가의 회화 작품 35점을 통해, 시간이라는 개념을 깊이 사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작가는 일상 속 익숙한 풍경들을 기록하며, 그 안에 깃든 시간의 흔적을 담아낸다. 바람에 흔들리는 구름, 새벽의 투명한 공기, 노을이 번지는 순간 등 겉보기에 비슷한 하루 속에서도 빛과 온도, 공기, 감정은 끊임없이 달라진다.

그는 이러한 변화의 결에 주목하고, 찰나의 감정과 색채의 변화를 포착함으로써



조선아 작 ‘기억의 처음’.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써, 흐르는 시간을 화면 위에 정제된 시선으로 기록한다.

조 작가는 작품 제작에 있어 분채와 한지 등 한국화의 전통 재료를 사용해 시간이 머무른 순간의 잔상을 그린다. 한지 위

에 여러 겹의 색을 얹고 덧입히는 과정을 통해 시간과 감정의 층위가 차곡차곡 쌓이고, 그 반복의 리듬은 자연의 순환과도 맞닿는다.

은은한 색채는 햇살처럼 천천히 스며들며, 고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남긴다. 자유로운 붓질은 기억과 감정의 흔적을 차분히 아로새기며, 평면 위에 시간의 결을 찬찬히 드러낸다.

조 작가는 “이번 개인전 작업 과정에서 정서적 치유를 경험했다”며 “빠르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 무심히 지나쳤던 감정의 조각들이 정리되고, 그 흐름은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작가는 전남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하고,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석사졸업 및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국내외에서 개인전 10회 및 다양한 기획전시에 참여했으며, 2022년 광주문화예술상 외재 허백련 특별상을 수상했다. **박찬 기자**

정일모 작가 개인전 ‘숨과 숨 사이’ 22일 개최

화순 소소미술관서

전라남도 화순 도곡면에 위치한 소소미술관이 치유의 예술을 담아낸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9일 소소미술관은 정일모 작가 개인전 ‘숨과 숨 사이’를 22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바쁜 일상 속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호흡’과 ‘틈’, ‘여운’이라는 감각에 주목하며, 감상자에게 조용한 쉼과 내적 성찰의 시간을 제안한다.

정일모 작가는 예술이 지닌 치유성과 감정의 흐름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창작을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26회의 개인전과 100여회 이상의 아트페어 및 그룹전을 통해 작품 세계를 확장해 왔으며, 심리상담학 전공을 바탕으로 회화와 치유의 경계를 탐색해 왔다. 또한 책 삽화와 미술치유 프로그램 ‘함박 flowing’ 운영 등 예술의 실천적 치유 가능성을 꾸준히 실현해 왔다.

전시장에 들어선 관람객은 작품과 작품 사이의 여백 속에서 스스로의 감정과 천



정일모 작 ‘숨과 바람’.

소소미술관 제공

천히 마주하게 된다. 마치 들숨과 날숨 사이의 고요한 호흡처럼 자기 리듬을 회복하는 예술적 체험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시와 더불어, 관람객과 작가의 깊은 소통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각 프로그램은 소수 정원(선착순 10명)으로 운영되며, 참여 신청은 소소미술관 학예실을 통해 가능하다.

전시 및 연계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는 전화(061-375-1995)로 하면 된다. **박찬 기자**